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1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7월 19일 (윤달 5월 26일) 수요일

국내 굴지 대기업 '광주형 일자리' 앞다퉈 관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의 전국적 모델로 정·관·재계는 물론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형(靑) 일자리'에 대해 국내 굴지 대기업들이 앞다퉈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시는 국내 굴지의 한 대기업과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공극적인 목적으로 한 기초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업은 자체 연구소를 통하여 보다 직접 분사 정책팀에서 이를 콘트롤 하고 있

그룹 본사 정책팀서 콘트롤...국가적 과제 반영

청년 일자리 창출·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적 과제라는 사안의 중대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강자로 떠오른 국내 완성차업체 근로자 평균 연봉의 절반 수준의 혁신적 공장을 만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

기 좋은 도시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으로도 풀이된다.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돼 3000억 원 예산이 우선 확보된 데다 광주경제에서 자동차산업의 비중

이 40% 안팎에 이르는 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점도 대기업의 구미를 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고임금 구조 탓에 채산성이 떨어지는 1500cc 이하 소형차 또는 경차 생산라인이나 부품조립 공장을 국가산단인 광주빛그린산단에 신설하거나 관련 업체를 부분 이전하는 방안 등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고임금 완성차 업체는 프리미엄급 차량을, 채산성이 낮은 소형차나 경차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근로자를 수혈하는 두 트랙 방식이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 고위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 창출을 위해 (굴지 대기업 등과) 긴밀하게 물밑 대화를 진행 중"이라며 "핵심 사안이고 민감한 측면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에는 LG경제연구원(LGERI) 소속 연구위원 3명이 1주일 가량 광주에 머물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였다.

LG경제연구원은 국내 재계 서열 4위인 LG그룹이 1986년 4월 설립한 싱크탱크 조직으로 삼성경제연구소와 더불어 양대 민간 경제연구소로 평가받고 있다. 100여명의 연구인력에 인터넷 사이트 회원만 70만명에 이른다. 국내 경제의 트렌드를 이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위원들은 운장현 광주시장과 광주형 일자리 추진배경과 방향 등에 대해 장시간 면담하고 광주형 일자리의 콘트롤타워격인 박병규 광주시 일자리특보에도 오랜 시간 밀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신봉우 기자



공군 제1전투비행단 새내기 빨간마후라

다. 사진(왼쪽부터)은 고등비행교육을 수료한 배성진 중위, 하태승 중위, 김근동 중위, 이창무 중위, 최재혁 중위, 류경민 중위가 T-50형공기를 배경으로 걸어나오며 영공방위의 결의를 다지고 있는 모습.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18일 오후 기지강당에서 '17-2차 고등비행교육 수료식을 거행하고 67명의 새내기 보라매들에게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마후라'를 수여했다.

5·18 최후항쟁지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속도

24일 TF팀 출범...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26일 서울서 면담

5·18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위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8일 광주시와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윤장현 시장과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이철우 대책위 상임위원장 김영정 대책위 집행위원장, 5·18 단체 대표들은 오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면담을 갖는다. 이들은 도 장관에게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에 대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근 도 장관은 대책위 관계자들과 비공식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옛 도청 복원 지원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와 대책위는 이번 면담에서 도 장

관의 공식적인 약속을 받아내고 정부 차원의 복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형 복원의 방향 등 큰 그림도 대책위 차원에서 이미 세워진 상태다.

대책위는 도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오는 24일 오전 대책위원장단 회의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위한 별관 점거 농성이 오늘로 315일째"라며 "5월을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지난 모든 잘못을 바로 잡고 이번

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영원히 복원할 수 없게 된다. 지역 사회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옛 전남도청의 원형 복원을 위해 고증자료를 모으는 TF팀도 이날 출범한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옛 전남도청 자료조사 및 수집 TF 1차 회의를 갖는다.

광주시와 전남도 5·18기념재단,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전남대 5·18연구소, 시의회, 언론인 등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원형 복원을 위한 자료와 증언을 모으고 전문가들의 지문을 구한다.

주춘성 기자



이판사판

문재인 정부의 전 정부에 대한 사정(同情)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어 정부수석실에서 136건의 캐비닛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 농단 사건의 공소유지하고 있는) 특검에 관련 (문건)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136건 중 공식 회의기록인) 254건의 문건 중에는 한 일 위안부 합의를 세밀히 조사, 국정 역사 교과서 추진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며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혐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문건 254건은 박근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비서실장 지시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와대는 문건이 공개가 제한되는 대통령기록물일 수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 인사의 숙여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



우병우



박근혜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곁엔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